

여의도 새 바람 몰고올 3인의 새 장수

NH투자증권 정영채

“국내는 좁다”
IB 대군

삼성증권 구성훈

“영토 넓히기”
정통 삼성맨

키움증권 이현

“기마병 처럼”
다크호스

올해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는 증권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 대표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것.

주요 증권사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호조와 증시 활황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투자은행(IB)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 먹거리 확보가 치열해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의 신임 대표가 이달 정기주총에서 공식 확정된다. 이번 신임 대표의 공통점은 IB 부문에서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점이다.

먼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내정자는 국내 IB 업계에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도 IB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세대 인물로 꼽히고 있다.

정 대표는 1988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2005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으로 자리를 옮긴 후 13년 연속 IB사업부 대표를 맡았다. IB관련 분야에만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실제 업계 최고로 꼽히는 NH투자증권의 IB사업의 성장은 정 대표가 일궈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2005년 취임 당시 업계 7~8위권이었던 NH투자증권의 IB 부문을 업계 1위로 끌어 올렸다.

특히 지난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넷마블게임즈 상장 주관, 서울 여의도에 들어설 초대형 오피스 빌딩인 파크

원(Parc1) 금융주선을 떠나면서 IB부문 최대 실적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은 IB사업부에서만 110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체 당기순이익(3501억원)의 31.5%가 IB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NH금융지주가 이례적으로 젊은 대표를 내정한 배경으로 꼽힌다. NH투자증권 임원추천위원회는 정 대표의 내정 이유에 대해 “NH투자증권을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리드할 글로벌 IB로 키워낼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초대형 IB사업을 역점해 둔 경영전략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내정자는 삼성자산운용 대표를 맡으면서 괄목할 만한 자산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독보적인 상장지수펀드(ETF) 사업자(점유율 53%)로 오른데도 구 대표의 역할이 컸다.

구 대표는 1987년 제일제당을 통해 삼성그룹에 입사한 전통 ‘삼성맨’이다. 이후 1992년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에서 일했고, 1998년 삼성생명 투자사업부 자리로 옮기며 자산운용업무에 발을 디뎠다. 이후 2015년부터 삼성자산운용 대표로 있으면서 123조7000억원(2014년 말 기준)에 불과했던 운용자산을 지난해 말 기준 220조원으로 끌어 올렸다.

운용시장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삼성자산운용은 국내에 처음으로 타깃 데이트 펀드(TDF·target date fund)를 선보이면서 퇴직연금 펀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시점을 정해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상품으로 ‘안정적·장기적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구 대표의 투자 철학이 담겼다.

물론 자산운용업과 증권업의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증권사 대표로서의 성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자산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는 구 대표의 경영 전략은 주춤하고 있는 삼성증권 IB업무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 키움증권 대표 내정자는 10년 간 이어온 권용원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더욱이 브로커리지(주식 중개)에 편중된 키움증권의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대표는 2000년 1월 키움닷컴증권사를 시작으로 키움저축은행 대표,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 등 다우키움그룹 계열사의 대표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이 대표가 키움증권 대표로 내정

신임 증권사 CEO 프로필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내정자



구성훈
신임 삼성증권 대표이사



이현
키움증권 대표 내정자

학력	1964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61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1957년생, 서강대 철학과 졸업
주요경력	1988년 대우증권 입사 2005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	1987년 제일제당 공채 입사 1992년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 2012년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 2015년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2018년 2월 삼성증권 대표이사 내정	1985년 조흥은행 입사 2000년 키움닷컴증권 이사 2002년 키움닷컴증권 상무 2007년 키움증권 전무 2009년 키움증권 부사장 2013년 키움저축은행 대표이사 2015년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자료/ 각사

된 데는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로 지난해 서 거둔 성과가 바탕이 됐다. 이 대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도시의 대체투자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액을 늘렸다. 이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인 순이익 162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달 키움증권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결정을 통해 자기자본을 1조7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향후 키움증권이 자기자본투자(PI) 및 신사업 확대 등 사업 포트

폴리오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키움증권은 전사 조직개편을 통해 헤지펀드 운용팀을 신설하고, IB부문을 세분화하며 IB사업 강화 체비를 마쳤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일반직 직원 72% “더블스타에 매각 지지”

» 1면 ‘금타 펀크 일보직전’서 계속

산업은행 관계자는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노조 동의절차만 남았다”며 “이달 말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노조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협약 절차를 즉시 중단기로 결의한 만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조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결정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채권단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추가 유동성 지원 없이는 이달을 넘기는 힘든 상황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금호타이

어 일반직 직원들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가입돼 있는 금호타이어의 생산직을 제외한 일반직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이들은 지난 주 일반직 대표단을 결성하고 해외자본 유지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률 71.5%에 찬성률 97.3%로 집계됐다.

금호타이어 일반직 사원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본사 앞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장 약속과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5057호(2017.11.7)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17-11-02

작은 병은 크큰 병이 되지 않도록

큰 병은 큰 병이 되지 않도록

경증과 중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한화생명 내가 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

[보증비용 부과형]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1588-6363
www.hanwhalife.com

한화생명